

4 교육

세계대학평가 학문분야 순위, 22개 분야 500위권에

김주연 기자 kimjuyeon@khu.ac.kr

QS에서 '2024 세계대학평가 학문 분야 순위'를 발표했다. 우리학교는 22개 학문 분야에서 순위권에 올랐지만 지난해보다는 5개 분야가 감소한 수치다.

QS는 매년 3, 4월경 학문 분야 순위를 발표한다. 올해도 전 세계 95개국 1500여 개의 대학을 평가해 5개 학문 분야와 55개의 세부 학과별 대학 순위를 공개했다. 평가 지표는 학계 평판도, 졸업생 평판도, 논문 피인용 수, 연구자 생산성 및 영향력 지수(H-index) 등으로 구성됐다.

호스피탈리티&관광 경영(Hospitality&Leisure Management)부문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0위권 이내의 순위를 유지했다. 작년 100위권 이내 진입에 성공했던 현대 언어학

(Modern Languages)과 간호학(Nursing)은 올해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공학 계열의 하락도 두드러졌다. 작년에 251~300위권을 기록했던 기계공학은 올해 351~400위권에 위치했고, 화학공학 또한 작년 201~250위권에서 올해 301~350위권으로 순위가 하락했다. 전자공학은 2021년 이후 3년째 200위권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 각광받는 분야인 컴퓨터과학 및 정보시스템은 올해 300위권 밖으로 밀려나 역대 최저 순위를 기록했다.

공학 계열의 순위 하락에 공과대학 이은열(화학공학) 학장은 “연구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평판도 부문과 관련해 대학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년 우리학교 QS 학문분야별 평가순위

1~50	
51~100	호텔관광
101~150	현대언어(▼), 간호학(▼)
151~200	영어영문학
201~250	농·임학(▼), 건축학(▼), 경영학(▼), 지리학(▼), 언어학(▼)
251~300	약학(▼), 전기·전자공학
301~350	경제학, 컴퓨터공학(▼), 화학, 화학공학(▼), 재료과학(▼)
351~400	기계·항공공학(▼), 수학, 의학(▼), 물리·천문학(▼)
401~450	생물학(▼)
451~500	환경과학(▼)

※ ▼ 기호는 지난해 대비 해당 학문분야의 순위가 하락했음을 의미

학문 분야 순위는 대체로 평판도 점수 하락으로 인해 하락했다. 우리학교는 연구 지표(논문 피인용 수, H지수 등) 점수에 비해 평판도 점수가 저조한 편이다. 실제로 평판도를 제외한 연구 지표 순위는 기계공

학 113위, 화학공학 89위, 전자공학 112위, 컴퓨터과학 193위로 평판도를 포함했을 때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학술진흥팀은 “학계 평판도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학교의 우수한 연

구 성과를 학계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학술 활동이 필요하다”며 “학교 차원의 연구, 교육 성과 홍보도 강화되어야 하고, 학문 분야 졸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자공학·컴퓨터공학 공학교육인증제도 탈퇴

황인찬 기자 phillip0503@khu.ac.kr

【국제】전자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가 지난 2월 29일부로 공학교육인증제도 인증연장을 포기했다. 이로써 총 9개 학과를 대상으로 하던 공학교육인증제도는 우리학교에서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

공학교육인증제도는 한국공학교

육인증원에서 제시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이 공학실무에 효과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보장하는 제도다. 우리학교는 지난 2006년부터 국제화된 공학 인력 양성을 위해 총 9개 학과(▲기계공학 ▲산업경영공학 ▲원자력공학 ▲화학공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 ▲건축공학

▲환경학 및 환경공학 ▲컴퓨터공학 ▲전자공학)가 참여했다. 유효기간은 2년으로 만료 시점마다 공학교육인증원의 심사를 받아 인증기간을 연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6년, 공학교육인증원 지침 변경으로 기존 인증프로그램이 ‘단일인증프로그램’으로 전환됐다. 기존에는 인증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선택했던 것과 달리 2016년 이후 신입생은 자동으로 프로그램 이수 과정을 따르게 됐다. 따라서 인증제도 이수 요건 만족을 위해선 정해진 교과과정과 엄격한 졸업기준을 충족시켜야 했기에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었다.

공학교육혁신센터 오혜미 과장은 “제도 시행 대상 학과 중 남학생 비율이 높은 학과 특성상 재학생 다수가 군 휴학으로 인해 중도 포기하는 학생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공학교육인증을 위해 투입되는 설계과목 및 포트폴리오 제작 인력과 공간, 재정 지원도 부족해 유지를 위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학교는 추가적인 인증제도 진행은 어렵다고 판단해 학과 회의를 거쳐 공학교육인증제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학교는 인증제도를 이수 중인 재학생을 고려해 공과대학 7개 학과는 지난 2021년까지,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은 올해

까지 연장해 인증제도를 진행했다.

인증제도 탈퇴로 졸업장 학위명표기가 기존 인증제도 이수자에게 표기됐던 ‘공학사(00공학전문)’에서 ‘공학사’로 표기된다.

타 대학도 인증제도 실효성 등의 이유로 공학교육인증을 포기한 경우가 존재했다. 고려대는 3개 학과(▲건축사회환경공학 ▲기계공학 ▲신소재공학)에 운영하던 공학인증제를 2022년부로 연장하지 않았다. 부산대도 기존 4개 학과(▲기계공학 ▲항공우주공학 ▲토목공학 ▲재료공학) 대상으로 적용하던 인증제를 지난해부터 기계공학 전공으로 한정해 운영 중이다.



대학주보 @khunews_jubo



인스타그램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팔로우